

## 편집자의 말

인간사 중에는 직전까지의 모든 논란을 침묵시키고 상황을 전면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단일 사건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유럽 국가들 사이의 얽히고설킨 갈등과 크고 작은 충돌들이 커져이 쌓인 끝에, “방아쇠 당기기”에 해당하는 사라예보의 총성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세계대전이 실제로 발발할 때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 말폭탄과 실제 폭탄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 말폭탄의 강도를 서로 강화해가고 있으면서도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1차대전이 일어났을 때 세인들의 당황스러움은 그만큼 컸다. 이럴 때 전쟁은 정녕 누구의 책임인가. 인간이 자기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믿지 않는 것과 닮았다고나 할까.

그만큼 맹목적인 낙관적 믿음이 2022년 2월 24일 이전까지 상당수 지구촌 주민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판단력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있었다는 말과 사실상 동의어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국제관계의 균형자 역할을 일정하게 하며, 미국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되 노련한 외교적 방책에 의해 그와 같은 작업을 해내는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존재에 대한 혹은 그의 이미지에 대한 믿음 말이다. 많은 관찰자가 국내정치에서 그가 보인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국제관계와 관련해서는 균형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인정해 주곤 하였다. 2022년 2월 24일은 이러한 존중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나토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가늘게나마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알팍한 믿음도 모두 망가뜨렸다. 이제 국제질서는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서도 인류는 이라크 전쟁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목격해 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는 몇십 년 동안 유혈갈등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자국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라크 인들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고통도 분명 고통이다. 이라크 전쟁과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아무런 국제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 군대가 자행한 전쟁범죄를 조사하겠다는 국제

형사재판소 검사를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감행한 군사적 공격에 대해 온 세계가 마치 처음 보는 일인 듯 충격과 공포의 반응을 보인 것은 우선은 ‘유럽의 일이 곧 전 세계의 일’인 양 여기는 서구인들의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이를 전파한 미디어의 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쟁 진행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위기, 특히 유가·곡물가 급등과 가파른 인플레이션도 세계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대단히 비극적이고 참혹하되 어쩐지 국지적인 일, 혹은 강대국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관련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계인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은 이에 대해 다소 무신경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은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 맞부딪치는 사태(미국은 전투 인력을 파견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의 하나다)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2차대전 이래 초유의 사태이고 이것이 2차대전 종전 이래 유지되어왔던 국제질서를 재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일인 것이다. 핵전쟁, 3차대전에 관한 예측들이 난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념의 시대는 진즉 저물었지만, 헌팅턴이 말했던 문명충돌의 시대도 뒤로 물러난 듯하다. 적나라한 지정학적 패권 다툼의 시대가 소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는 ‘모든 단단하던 것들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든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일각에서는 달러패권이 몰락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방 세계가 대동단결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위기 앞에서 대동단결이 흐트러지는 경향도 감지된다. 그런 가운데 서방국가의 집권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 나오고 있다.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한 한편 러시아는 2차대전에서 소련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나치독일에 대해 승리를 거둠으로써 얻었던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을 이번 전쟁을 통해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의 동서화해 정책으로 러시아 바깥의 수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가졌던 호감도 호소력을 잃어버린 듯하다. 전쟁 개시 전에는 나토의 동진이 초래할 위협에 대한 경고도 여러 차례 나왔고, 우크라이나 내 반데라 추종세력의 위험성이나 돈바스 지역에 젤렌스키 정부가 가한 공격의 협정위반 여부 등에 대해 많은 논란도 있었으나 이제 그 같은 논란은 일단 자취를 감

추고 말았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험난하고 굴곡 많았던 과거사에 대한 논의들도 쑥 들어가 버렸다. 이 모든 사태를 이 형태로 서방이, 특정하게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전쟁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무어라고 하든 결코 보편적 정당성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는 사태인 것이다.

2차대전 시기의 최대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양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었던 나라들이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소련의 덕을 크게 입었던 독일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영토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일본도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수립된 질서는 냉전체제였고 이는 2차대전에서 소련이 치른 희생과 소련이 거둔 승리에 대해 서방 세계와 패전국들이 보내는 인정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알타 체제라고 불리는 국제질서가 그것이었다. 냉전 시기에 서방은 소련 영향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거의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계속 두고자 한 시도에 대해 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냉전 시기와 완전히 다르다. 서방은 러시아의 약화를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나토는 오히려 훨씬 확대되었고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는 2022년 2월 24일에 확실히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약화가 서방의 기대대로 진행될지는 모른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과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또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과연 러시아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첨단산업 발전의 전망이 어두워졌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중국만 득을 본다는 말도 그럴듯해 보인다.

세계인들이 자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 러시아인들은 과연 자부심을 느낄까.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 민간인들이 전쟁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면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중부 및 서유럽인들도 나토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적어도 난민 문제라는 한 가지 문제만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몰려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유럽인들은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인간애와 환대의 정신이 빛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에 대해서는 냉대와 박해를 거듭하고 있다. 전투에서 누가 이기든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같이 보이는 그러한 전쟁이 봄이 다하도록 계속되고 있다. 인간은 정녕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존재인지, 관찰자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듯해 보이는 상황이 안타깝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이 같은 사태 속에서도 이번 『러시아연구』 제32권 제1호에는 여덟 편의 글이 실렸다. 문학 2편, 어학 1편, 역사학 1편, 고고학 1편, 사회과학-지역학 3편이니, 편수는 평상시보다 다소 적지만 학문 분야별 분포로 보면 어느 때보다 균형이 잘 잡혔다고 할 만하다. 논문들에 대해 잠시 일별해 보기로 한다.

인류는 물에 가라앉은 도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아틀란티스와 같은 신화적 이야기에서 20세기에 댐 건설을 위해 희생된 한국의 수몰마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도시-촌락 수몰의 서사와 배경,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수몰된 도시-촌락 이야기는 끝없는 상실감과 그리움과 일말의 죄책감을 수반한다. 동시에 인간의 이기심과 이를 노여워하는 신의 징벌에 대한 것이건,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에 대한 것이건, 거의 언제나 묵시록적인 강력한 경고를 발하는 것이 수몰 도시 이야기이기도 한다.

러시아의 수몰 도시 이야기는 어떠한가. 김민아의 논문 「키테시 전설의 다층적 의미 분석: 「키테시 전설(Легенда о граде Китеже)」 텍스트를 중심으로」는 19세기 중반 이후 러시아 문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지금까지 러시아 민중의 의식 속에 살아남아 지역전설로서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는 키테시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전설은 바투가 이끄는 몽골 군대의 침공에 맞서 저항하다가 전사한 블라디미르 수즈달 공 유리(게오르기) 프세볼로도비치가 불쇼이 키테시 도시를 창건했다는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가 실제로 다스린 말리 키테시 도시의 이름에서 허구의 도시 불쇼이 키테시의 이름이 태어났는데, 스베틀로야르 호숫가에 있던 이 도시가 이교도의 침공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는 신의 보호를 받아 물 아래로 가라앉아 숨겨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프세볼로도비치에 대해 집필된 연대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첫 번째 부분과 지상 낙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설적이고 묵시록적인 기념비 장르에 속하는 두 번째 텍스트 “내밀한 도시 키테시에 대한 이야기와 징계(Повесть и взыскание о граде сокровенном Китеже)”

를 합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문헌의 기원, 작성자의 정체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이 전설을 기록한 첫 문헌에서는 이 이야기가 키예프 루스 시절인 6646(1237)년에 집필된 연대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원본이나 필사본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논문 필자 역시 이 문헌이 13세기 텍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다만 키테시에 대한 구비 전설과 루스의 기록 문헌들이 18세기 말의 키테시 텍스트의 원질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설의 기록자는 러시아 교회분열로 생겨난 구신도(староверы 이 논문 필자의 표기로는 “구교도”), 그중에서도 무(無)사제파인 방랑자 종파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논문은 유리 프세볼로도비치의 전사를 순교라고 보는 민중의 믿음 속에서 그의 혈연관계에 대한 전설상의 수정이 일어났다는 점, 그가 세웠다는 수몰 도시 볼쇼이 키테시는 다름 아닌 구신도(“구교도”)들의 공간적 근거지 가운데 하나인 곳에 위치한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소개하면서, 이와 아울러 이 전설의 성자전적 성격과 유토피아문학적 성격들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루스와 러시아 정교신자들은 이교도들의 침입으로 발생한 전화를 자신들의 죄에 대해 신이 내리는 채찍이자 징벌로 여겨왔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전쟁의 참화를 수도 없이 겪어왔던 러시아인들이 자국 정부가 유발하여 목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자못 궁금해지는 시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떠한 국제관계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러시아의 국제관계 구상 속에서 일어났는가, 오늘날 국제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를 거론한다. 침공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세계화에서 디커플링으로’라는 구절이 자주 거론된다. 푸틴의 대외정책을 추동한 이념적 기반이 21세기적 유라시아주의나 역사적 슬라브주의냐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푸틴 자신은 알렉산드르 두긴 류의 유라시아주의를 현명한 교시로 받들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연설에서는 키예프 루스 이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련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슬라브주의적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김선래는 「러시아의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 개념과 중러 협력」에서 유라시아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 구상을 살펴보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초기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개념을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에 국한하였으나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 GEP)’의 개념은 리스

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를 뜻하는 유럽과 아시아로 그 범위를 확장했다. 알렉산드르 두긴이 주장하는 지정학적 유라시아주의에 바탕을 둔 개념이라고 보인다. 논문은 우선 유라시아주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와 두긴 류의 신유라시아주의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현재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강력한 지지 아래 유라시아주의가 국가 철학으로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논문은 이어서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 전략을 소개하는데, 이 전략은 2016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스본에 이르는 유라시아 통합프로젝트’로 제기되었다. 논문에 따르면 GEP는 러시아 정체성이 유럽이 아닌 유라시아에 근거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유라시아 통합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개념은 경제적 연결성이며 이러한 경제적 개념이 국가 간의 무역과 사회, 기관, 조직들을 통합하게 된다. 러시아가 제안하는 확장된 유라시아 파트너십(GEP)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중국, 일본, 한국, ASEAN 국가들을 포함하는 주요 경제주체들과의 통합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 푸틴은 EAEU와 일대일로 조화가 자유로운 경제협력 공간인 GEP를 완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논문은 크림 합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추진하는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아우르는 유라시아 경제 통합은 좌초되었다고 본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개념이 동쪽으로 확장하는 유라시아주의인 GEP로 변환되었다고 하겠다. 러시아의 GEP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중국은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GEP를 설계했지만 GEP는 중국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러시아의 확장된 유라시아주의 개념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과연 무사히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사람은 의구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좌절을 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흑해에서 유라시아 남부초원을 횡단하여 시베리아 지역까지 펼쳐지며 공통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스키토-시베리아 문화는 많은 숭배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유물은 동물문양유물일 것이다. 이 유형의 문양은 관련된 출토유물도 많은 데다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변형되어 소개되기도 하면서 스키토-시베리아 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기까지 하다. 이 문화권의 연구자들이 동물문양장식 연구에 많은 공력을 들여온 것은 그런 면에서 지극히 당연해서, 그동안 동물문양장식의 표현방식, 제작방법, 지역성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 의미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문양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김재윤의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 동물문양장식의 기원에 대한 연구사 검토 및 연구 전망」은 20세기 초 이래 스키토-시베리아 동물문양장식의 기원에 대해 진행되어 온 연구사를 검토·정리한 글이다. 논문은 연구사를 외부적 관점과 내부적 관점으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논문에 의하면 동물문양 유물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그리스 기원설, 시베리아 기원설, 서아시아 기원설로 크게 나뉘고, 그리스 문화 유입 후 동물문양이 큰 전환을 겪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고 한다. 논문은 특히 1970년대 전반 아르잔-1호의 발굴 결과가 동물문양의 시베리아 기원설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는 점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논문은 동물문양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 동물문양에 자주 활용된 자세(예를 들어 고리형)도 분석하고 있는데 동물의 자세, 동물의 종류 등에 따라 기원 지역에 대한 학설도 바뀔 수 있다고 하겠다. 종합하자면 “거대한 문화권 내에서 다양한 교류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동물문양의 기원에 대해서뿐 아니라 동물문양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변화의 경고음이 울리는 곳은 유럽뿐만이 아니다.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치·경제·안보의 불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러시아제국과 소련에 속해 있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영토와 주권의 보전에 대한 근심까지 포함한 실존적 위기가 등장한 상황이다. 그런 한편 중앙아시아는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이기도 하다. 윤성학은 러시아와 중국과 각기 맺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고민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를 집필하였다. 논문은 먼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회원국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옵서버 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 회원국들이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라시아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주권유지와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향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양자 간 갈등의 바탕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어서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중국의 이익 중심으로 운

영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부채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도 지적한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정책이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장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우위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 이를 인정한 듯한 상황임에도 실제로 EAEU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하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력이 약화되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논문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체적 대응은 또 다른 강력한 변수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이 강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배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소련의 민족정책은 소련 해체 과정 이후에 오히려 집중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은 주제다. 70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였던 공화국 연방 체제가 어찌하여 그토록 쉽사리 무너졌는지, 민족정책의 내부적 그림자는 무엇이고 연방 균열을 초래한 취약한 지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현실적, 학문적 요청이 이 주제에 관한 탐구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광태는 19세기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 지식인들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관심의 지평을 시공간적으로 확대하여 20세기 소련의 민족정책이 역사서술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어떠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상황에서 역사학자는 어떠한 운명을 겪었는지 살펴보는 논문을 기고하였다. 그의 글 「안나 판크라토바와 스탈린 시기 민족사 서술 논쟁: 『카자흐사』를 중심으로」는 소련 시절 가장 유명한 소련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나 판크라토바의 활동과 수난을 중심으로 스탈린 집권기 소련의 민족사 서술 정책의 수립과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안나 판크라토바가 집필에 관계한 민족사는 카자흐 민족의 역사였다. 볼셰비키 혁명 후 1920년대까지 소련 역사학계는 미하일 포크롭스키 사관의 강력한 영향 아래서 제정 시대 러시아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련 내 여러 민족의 문화적, 역사적 자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과 공산당 지도부의 민족정책이 러시아 민족의 특별하고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화한 1930년대 중반 이후 이 같은 논의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포크롭스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던 안나 판크라토바는 스탈린 정권의 해석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스승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편집책임자로 펴낸 『카자흐 소비에트 공화국의 역사』(1943)는 스탈린의 러시아 민족 미화의 경향에 반대하고 차리즘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해온 카자흐 민족의 민족성(народность)을 강조하였으며, 카자흐 민족의 형성과 민족 국가의 성립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안나 판크라토바는 스탈린주의 역사학자들과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판에 직면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그리고 판크라토바는 스탈린 사후 스탈린주의 역사학을 넘어서려던 시도에서 또다시 좌절을 겪은 후 세상을 떠났다.

안나 판크라토바가 카자흐사 서술에서 겪었던 수난은 러시아인보다 더 강경한 대러시아 국수주의적 태도를 취했던 조지아인 스탈린이 민족정책과 역사학에 미친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탈린은 개별 민족들의 자율적 역사 발전의 잠재력을 무시하려 하였고 러시아의 영도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것으로 개별 민족들을 소련 체제에 통합시킬 수 있었을까? 이광태의 논문을 통해 우리는 복합민족 제국 소련의 통치자로서 학문 영역에서도 전횡을 일삼았던 권력자와 자신이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진실만을 고수하고자 했던 역사학자 사이에 벌어진 대결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추적할 수 있다.

볼셰비키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레프 톨스토이를 ‘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외치는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이 농민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귀족 토지소유자이자 무저항 비폭력주의자인 톨스토이에게 이념적인 면에서 비판적이었던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다. 하지만 리얼리즘의 최고봉인 톨스토이의 예술에 대해서는 레닌이 무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병훈·이양숙이 함께 집필한 「1930년대 소비에트 문학논쟁의 거울로서 레닌의 톨스토이론」은 1920-30년대 소비에트 문학논쟁 중 세계관과 창작방법 논쟁의 쟁점과 대립하는 입장들이 다름 아닌 레닌의 톨스토이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레닌이 톨스토이를 이해하는 새로운 담론들을 생산하고, 톨스토이 연구의 영역을 확대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레닌이 톨스토이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리얼리즘 예술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다. 즉 레닌은 러시아 현실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능력과 예술의 속성을 구현하는 그의 천부적 재능은 톨스토이의 유산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레닌은 톨스토이가 “모든 것이 전복되어 버렸고, 다시 막 모습을 갖춰가고 있을 뿐”인 당시 러시아의 역사적 전환의 본질을 지극히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혁명의 거울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논문은 “러시아 혁명의 거울로서의 톨스토이”라는 레닌의 견해를 ‘리얼리즘의 승리’를 말한 엥겔스의 유명한 발자크론과 비교하고 있다. 다만 논문에 의하면 레닌은 톨스토이에게서 리얼리즘의 승리를 말하면서도 세계관의 패배를 그에 못지않게 중시했다. 논문은 사상가로서의 톨스토이와 예술가로서의 톨스토이를 구분하는 해석이 일찍이 플레하노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지적하면서 플레하노프의 톨스토이론도 소개한다. 이어서 1930년대에 레닌의 톨스토이론에서 출발하여 세계관의 측면에서 톨스토이론을 편 논자들과 리얼리즘론에 바탕을 두고 톨스토이론을 편 논자들의 주장을 소개한다. 또한 논문은 ‘창작방법 중심주의’에 입각한 루카치의 톨스토이론도 소개하는데, 루카치에 의하면 톨스토이의 리얼리즘은 혁명운동과 같은 현실의 근본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통해 세계관을 극복한 사례였다. 레닌은 “톨스토이라는 인류문화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의 역사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으며”, 그의 톨스토이론은 소비에트 비평계의 톨스토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논문은 레닌의 톨스토이론을 절대시하지 말라고 권한다. 레닌은 정치인이었고 예술을 정치가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의 분쟁에 늘 군사적으로 개입해 왔던 것은 아니다. 구 소련권 국가들의 개입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기도 했다. 그랬던 러시아가 2022년 1월, LPG 가격 인상을 계기로 하여 일어난 카자흐스탄의 시위 사태를 두고는 왜 CSTO 기구 소속국 자격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사태를 토카예프 대통령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짓게 했을까? 이주연의 논문 「카자흐스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요인 분석: 브레처 모델을 중심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한 시도이다. 분석의 틀로는 외교정책의 국내·외 요인을 포함하여 정책결정자의 외교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브레처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이 틀 아래서 논문은 러시아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결정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제관계 차원에서는 미국의 패권 강화 대외정책과 러시아의 강대국 건설 지향 정책이 충돌하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밀월관계가 돈독해지며 나토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유라시아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다른 근외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것,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카자흐스탄 사태를 러시아가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후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러시아-카자흐스탄 양국관계 차원에서는 양국의 밀접한 정치, 경제, 군사적, 역사문화적 관계를 들 수 있고 내부 환경으로는 푸틴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통치,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강화된 러시아 군사력을 들 수 있다. 푸틴의 심리환경적 요인으로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소패권을 지향하는 외교정책으로서의 유라시아주의, 나토의 동진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진행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서방의 지원으로 일어나는 색채혁명 등으로 인해 푸틴이 느끼는 안보 불안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논문은 러시아가 전통적 우방국인 카자흐스탄의 정권을 지켜주고, 카자흐스탄의 시위가 색채혁명으로 발전하여 러시아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카자흐스탄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자흐스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같은 군사적 개입은 푸틴이 공세적 외교정책을 선호하게 되었고 사태의 신속한 종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행해졌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군사적 개입의 성공은 푸틴에게 대외정책과 관련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우크라이나에서도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번에는 사태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것, 각 사회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번 호에 실린 어학 논문은 러시아어의 상에 관한 연구다. 이주홍은 「러시아어 이차불완료상화 연구: 시제별 빈도수를 중심으로」에서 “상적 삼중쌍”(相的 三重雙, aspectual triplet) 동사들이 시제별 빈도수 그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불완료상 동사에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진 완료상 동사에 다시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이차불완료상(2IMPF) 형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하나의 완료상-불완료상 쌍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논문은 이처럼 2IMPF가 존재하는 동사들에서 하나의 완료상 형태에 해당하는 두 가지 불완료상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 상적 삼중쌍(видовые тройки)을 이룬다고 칭한다. 이같은 경우 1차불완료상과 2차불완료상은 의미적·기능적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 논문은 “상적 삼중쌍”이라는 용어 자체의 설명에 이어 15개 동사를 선정하여 러시아 국립 코퍼스에서의 용례 연구를 통해 1차불완료상

과 2차불완료상의 의미 차이와 시제별 빈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과거시제와 현재시제에서의 1IMPF와 2IMPF의 빈도수 차이는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미래시제에서는 대부분 2IMPF가 코퍼스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다른 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래시제와 2IMPF의 형태가 서로 잘 조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빈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사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1IMPF와 2IMPF의 어휘적 의미가 동일했고 2IMPF는 상적인 의미 차이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1IMPF의 의미와 2IMPF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며 2IMPF가 주로 1IMPF에서 파생된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 등 편차를 보인다고 한다. 즉 하나의 형태에서 상적으로 파생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맥락 속에서 각기 달리 쓰임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상적인 의미만으로 차이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어휘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어에서 상의 “삼중쌍”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동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순전히 문법적인 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휘적으로 분화되는 쪽으로 더 진행되기도 한 연속체임을 의미한다고 한다.

“삼중쌍”이라는 번역어의 적합성, 일차불완료상(1IMPF)과 이차불완료상(2IMPF)의 사용빈도차를 기준으로 한 그룹 분류의 타당성 여부 등을 두고 논문필자와 심사자들 사이에서 진지한 학문적 논의가 오고 갔음을 논문 지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쌍(雙)이라는 한자어가 둘씩 짝을 짓는 것을 뜻하므로 “삼중쌍”이라는 역어는 실제로 쌍이 셋(그러므로 여섯)인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비전문가로서의 발언이라는 특권이 허용된다면, “상적 삼중쌍” 동사라는 말을 ‘이차 파생 불완료상 동사’가 되었든 ‘상적 삼중형태 동사’가 되었든 여하튼 좀 달리 번역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러시아어의 상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이 언어의 섬세한 내적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살아있는 생물임을 감안할 때, 언어학자의 작업은 부단히 변화하는 용법과 의미변화를 부단히 추적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논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표도르 튜체프는 19세기 후반에 ‘머리로 러시아를 이해할 수는 없으니, 보편적 척도로 재려 하지 마라. 이 나라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니 러시아는 그저 믿어주어야 한다.’라고 설파하였다.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이 길게 이어지고 우크

라이나인들이 고통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믿어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이 잠언풍의 시구가 러시아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세계인들을 향한 발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고민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해본 독백인지 물어보게 된다. 러시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러시아가 자폐적인 사회로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는지 러시아인들이 답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러시아 바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계속 수행을 명령하고 있는 집권자와 일반 국민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쟁의 비인간성은 진심으로 규탄하고 그 중단을 촉구하더라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학문적 연구까지 도외시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온 세계의 이목이 러시아에 쏠려 있지만 바로 이 상황 때문에 러시아학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시각도 등장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해져서라는 것이다. 세레 성수를 버리려다 세레받은 아기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학문은 전쟁보다 길다는 것, 학문을 통해 인간사를 이해하고 통찰하며, 다른 사회와의 대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작업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포기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서울대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러시아연구』는 앞으로도 러시아와 슬라브 세계, 유라시아 세계 전반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러시아연구』는 창간 이후 지령 제32권 제1호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자양분으로 삼아 왔다. 역대 소장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돈도 권력도 없는’ 학자들이 이룬 연구의 산물을 아우르는 이 지면이 든든히 유지될 수 있었다. 실무적인 면에서는 최상의 학술지를 발간한다는 일념만으로 심사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부터 학술지의 반듯한 외형 유지, 오탈자와 비문의 수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번거로운 일들을 밤잠을 설쳐가며 도맡아 담당해준 연구소 간사 박소연 박사의 헌신으로 이 지면이 성장해 갈 수 있었다. 박 박사의 노력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논문을 기고해 주신 모든 분, 심사해 주신 모든 분, 이 학술지에 실린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 파르나소스 산에 시인 예술가들이 모였듯 『러시아연구』라는 학문의 동산에 함께 모여 사심 없이 교류해 준 모든 진지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에서 나오는 고마움을 전한다.

2022년 5월 27일  
편집위원장 한정숙